제2장

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

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

Ⅰ. 일반현황[1] (2016. 7. 1 기준)

□ 기본현황

○ 인 구 : 135천세대, 335천명 (부산시 전체의 9.31%)
○ 면 적 : 41.7㎢ (부산시 전체의 5.4%)
○ 행정구역 : 16동 438통 2,626반
○ 공 무 원 : 807명
○ 행정조직 : 3국 2실 1단, 21과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2사업소, 16동

□ 기반시설

○ 도 로 : 235㎞ (도로율 17.4%)
○ 주 택 : 130천호 (보급율 104.7%)
○ 상 수 도 : 28.2천전 (보급율 100%)
○ 하 수 도 : 868㎞ (보급율 95.3%)
○ 도시철도 : 6.4㎞ (1호선, 6개역)
○ 공원·유원지 : 54개소

□ 생활환경

○ 문화관광시설 : 34개소
(문화회관1, 도서관2, 작은도서관14, 주민센터16, 영화관1, 관광호텔1)
○ 교육기관 : 63개교 (대학교2, 고14, 중16, 초27, 특수학교1, 기타3)
○ 체육시설 : 304개소 (체육도장91, 골프연습장55, 수영장2, 기타156)
○ 어린이집 : 208개소 (국공립18, 법인16, 민간80, 가정92, 직장2)
○ 등록차량 : 112,850대 (승용 91,446, 화물 16,480, 기타 4,924)

1) 2016년 지역기본자료(사하구)

□ 사회복지 및 보건·의료

○ 복지시설 : 63개소

- 복지관 5, 장애인 12, 노인 22, 여성 2, 아동 19, 노숙인 1, 자활센터 2

○ 의료업소 : 493개소 (병원 46, 의원 173, 치과의원 101, 한의원 86, 기타 87)

○ 약 업 소 : 519개소 (약국 122, 한약방 1, 의료기기판매업 243, 도매상 8, 안전상비 의약품판매 145)

□ 지역경제

○ 공업입지 : 9.48㎢, 등록업체 1,676개, 종업원 32,966명

○ 공단현황 : 2,815천㎡, 670개 업체

▹ 신평・장림산업단지 (885천㎡, 188개 업체),

▹ 협업화산업단지 (1,930천㎡, 482개 업체)

○ 유통시설 : 38개소 (대형마트 3, 쇼핑센터 2, 전통시장 15, 기타 18)

□ 국내외 자매결연, 우호협력 도시 현황

○ 국 내(1) : 경기도 안성시

○ 해 외(1) : 중국 상해시 갑북구

□ 재정규모

<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우 리 구 (구성비)	부 산 시 (구성비)	비고
계	4,246 (100%)	116,417 (100%)	
일반회계	4,051 (95.4%)	79,525 (68.3%)	
특별회계 (기타, 공기업)	134 (3.16%)	27,749 (23.8%)	
기 금	61 (1.4%)	9,143 (7.9%)	

※ 재정자립도[2] 16.7%, 재정자주도[3] 28.2%

2)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 가늠 지표, 자체수입액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체수입=지방세+ 세외수입

3) 재량적·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원비율, (자체수입+ 자주재원)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주재원=지방교부세+ 조정교부금등

Ⅱ. 대·내외 경제 전망

세계경제 전망

○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에 따라,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선진국은 2%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영국의 EU탈퇴에 따른 성장률 일부 저하 예상

-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,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

○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금융시장 충격과 교역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더욱 약화 우려

-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,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

<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, IMF, '16.7월) >

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세 계	3.1	3.1	3.4	3.6
· 선진국	2.3	1.8	1.8	2.2
· 신흥국	4.3	4.1	4.6	4.7

국내경제 전망

○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,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2.7%, 2017년에 3.0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(IMF)

- 다만, 최근 영국의 EU 탈퇴, 테러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

○ 세입여건은 비과세·감면 정비,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

-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

○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고,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대

-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

○ 수지 · 채무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%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

- 불확실한 세입여건 하에 복지·의무지출과 미래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

- 재정이 경제의 최종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

2016~2020 국가재정운용 전략

□ 기본방향

○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, 재정을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

- 특히,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, 세출은 인구·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'일관' 되고 '지속' 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
- 아울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 내용을 성장친화적, 고용친화적으로 관리

○ '16～'20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체적 규모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

- 총수입은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자금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을 추진
- 총지출은 경제역동성 확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도, 재정지출을 효율화

□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

○ '16～'20년 기간 중 일자리,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할 계획

-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,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

- 고용디딤돌 등 청년·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,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

○ 북한의 도발, 테러 등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안보·치안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

- 북한 핵·미사일 위험에 대비한 핵심전략 투자, 아동·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강화

○ 한편, SOC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, 산업·농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

-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, 위험분담*·손익공유**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적극 보완

* (BTO - risk sharing)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
** (BTO - adjusted) 정부가 최소한의 위험 분담,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

○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, 6차산업* 육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함

* 농어업 생산·가공-유통-관광·체험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